

신들의 도시, 섬들의 나라  
그리스 아테네

# Athens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가 움튼 이곳에는 번영했던 고대 문명이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흔적 위에 그림을 그리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글·사진 한미희 기자





# 고대 아테네의 심장 유럽의 시작

어릴 적 읽은 그리스 신화도, 대학에서 들었던 정치 철학 수업도 모두 가물가물한데 어쩌다 무턱대고 아테네에 내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이 도시만큼 적확하게 적용되는 여행지가 또 있을까. 하지만 상상력을 뒷받침해줄 작은 기억도, 지식도 바닥이 뻥히 보였다. 이럴 땐 미련 없이 느슨한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가이드를 따라 고대 아테네의 심장으로 향했다.

## 고대 아테네의 심장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는 중심지의 가장 높은(acro) 곳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아크로폴리스는 도시의 수호신을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이자 도시 방어를 위한 요새 역할을 했다. 아크로폴리스는 도시 국가마다 있었으니 보통명사지만 지금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면 당연히 파르테논이 있는 아테네의 언덕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테네를 두고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경쟁할 때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소금물을 제공했다. 건조하고 메마른 아테네 땅 곳곳에서 올리브 나무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지만, 소금물은 쓸 데가 없으니 아테네인들은 아테나를 선택했다. 아테네가 가장 번영했던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 제우스의 머리에서 갑옷을 입고 나온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나를 위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지었다. 아테나가 여신이었기에 신전에 붙인 이름이 '처녀의 집'이란 뜻의 파르테논이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2천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맥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인정했다. 여성의 참정권은 19세기도 끝나가는 1893년에야 뉴질랜드에서 처음 주어졌으니, 여성 배제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 1 해 질 무렵 필로파포스 언덕 근처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 정면에 파르테논 신전과 왼쪽에 입구인 프로필라이온, 아래쪽에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이 한눈에 보인다.
- 2 고대 아크로폴리스 복원도





1 아크로폴리스 남쪽 기슭에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 당시 1만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2 아크로폴리스에 올라 내려다보면 원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사진 아래쪽 길이 난 곳까지 모두 관객석이었다.



3 디오니소스 극장 무대 앞 가장 좋은 자리는 등받이가 있는 '상석'이다. 로마 시대의 유물이다.  
4 로마 시대에 완공된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 매년 여름 축제 때마다 공연이 열린다.

**도시의 높은 곳으로**

언덕을 올라다보니 성벽 위로 복원 공사 중인 파르테논이 보였다. 새 파란 하늘 아래 파르테논을 올라다보며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높이 156m의 바위 언덕은 서쪽 입구를 제외한 삼면이 절벽이다. 남쪽 기슭을 지나며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디오니소스 극장이다.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났다는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자 연극의 신이다. 아이스킬로스, 아리스토파네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이곳에서 초연됐다. 1만7천명을 수용했던 대극장은 현재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 일부가 남아 있고, 여전히 복원·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의 연극은 예술 활동만이 아니라 민주정치를 정착해 가는 과정의 산물이기도 했다. 연극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과 인간의 평등을 이야기했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이 눈에 띄었다. 무대 앞 맨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등받이가 있는 의자다. 이걸 이후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별다른 음향 시설도 없는 이곳에서 그 많은 고대 아테네인들이 모여 나눴을 운명과 비극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잠시 상념에 빠졌다.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나와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디오니소스 극장보다 훨씬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음악당이 나온다. 로마 시대인 161년, 대부호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죽은 아내를 기리며 만든 것이다. 1950년대에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거쳐 지금까지 여름 축제 때마다 실제 공연이 열리는 곳이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3천석, 웅장해 보이는 이곳이 5천석이니, 1만7천석의 온전한 디오니소스 극장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4

아침 일찍 지하철 아크로폴리 역에 모였다.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니 서두르는 게 좋다. 매표소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자니 바로 옆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고대 아테네의 심장인 아크로폴리스와 주변의 고고학 유적지는 민주주의와 철학, 연극, 과학, 예술이라는 유럽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등장한 곳'이며 '유럽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유럽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는 설명이 그리스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다. 대문자와 느낌표로 강조한 마지막 문장은 '유럽이 여기에서 시작된다'(EUROPE STARTS HERE)였다. 앞의 두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한 줄이었다. 아테네 고고학 여행에서 밑줄을 두 번, 세 번 굵고 별표까지 한번 더 치고 시작할만한 문장이다.

**전쟁이 남긴 흔적들**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길에 깔린 대리석은 긴 세월 닳고 닳아 반질반질 윤이 난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오르면 드디어 신전의 입구인 프로필라이온이 나온다. 덩그러니 남은 대리석 기둥의 유난히 하얀 부분은 복원 과정에서 새로 끼워 맞춰 놓은 조각이다. 파르테논의 지붕은 전쟁으로 파괴된 것이지만, 프로필라이온의 지붕은 애초에 지어진 적이 없는 미완의 상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니 어쨌든 둘 다 전쟁이 남긴 흔적이다.

프로필라이온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는 아테나 니케 신전은 정문보다도 작고 크게 눈에 띄지도 않지만, 아테네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지었기 때문이다. '니케'가 승



1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를 기리는 파르테논 신전 동쪽 정면  
2 영국박물관에 전시된 동쪽 페디먼트(박공벽) 조각 일부



3 신전 주변에 흩어져 있는 대리석 조각들  
4 신전 입구인 프로필라이온. 지붕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애초 짓지 못했다.  
5 프로필라이온에 있는 한 기둥이 어긋나 있다.

리의 여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니케 신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오는 아테나에게 바쳐진 신전이다. 입구를 통과하면 오른쪽으로 철골 구조물에 싸인 파르테논의 서쪽 뒷면이 보인다. 남쪽 면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주변에 흩어져 있는 대리석 파편들을 볼 수 있다. 지붕은 파괴되고 신전 안에 있던 거대한 아테나 파르테노스 상,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을 지붕 아래 조각들도 사라졌지만, 지름 2m, 높이 10m의 대리석 기둥 46개가 둘러싼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었다.

신전은 정복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교회도 됐다가, 모스크가 되기도 했다. 어떤 정복자들은 성스럽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아꼈고, 때로는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신전이 결정적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것은 오스만 제국(터키)이 아테네를 점령했던 1687년이다. 오스만은 베네치아와 전쟁을 벌일 때 파르테논을 화약고로 사용했고, 베네치아의 포격을 받은 신전은 불이 붙어 화약이 폭발하면서 무너져내렸다. 19세기에는 오스만 정부에 파견된 영국 대사 엘긴이 페디먼트(박공벽 부분)와 메토프(페디먼트와 기둥 사이 외벽), 프리즈(안쪽 기둥 상단의 외벽) 등을 장식한 대리석 조각을 가져갔다. 수호신 아테나의 탄생부터 수호신 자리를 두고 벌인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싸움, 신들의 전쟁, 아테나를 기리는 종교의식이자 축제인 판아테나이아 제전을 묘사한 이 대리석 조각들은 영국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파르테논 갤러리에서 '엘긴의 대리석'이라고 불리며 전시되고 있다.



Check

인터넷을 검색하면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라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다. 유네스코의 로고가 파르테논을 본 따 만들어져서 불러온 오해인 듯하다. 1978년 에라도르 갈라파고스 제도를 비롯한 12곳이 처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파르테논 신전은 단일 등재된 것이 아니라 1987년 등재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안에 포함돼 있다.



1 아레오파고스에서 올라다본 아크로폴리스 2 아레오파고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오른쪽 긴

빨간 지붕 박물관부터 왼쪽 끝에 보이는 헤파이스토스 신전까지가 아고라다. 3 아레오파고스 바위 언덕 아래에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담은 사도행전 구절이 새겨져 있다.



도시의 높은 곳에서

요새 역할을 했던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아테네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남쪽 끝에서 내려다보면 디오니소스 극장 전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동쪽 끝 전망대에서는 파르테논 정면과 아크로폴리스 전경이, 뒤를 돌면 화가 난 아테나가 집어 던진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만들어졌다는 리카베투스 언덕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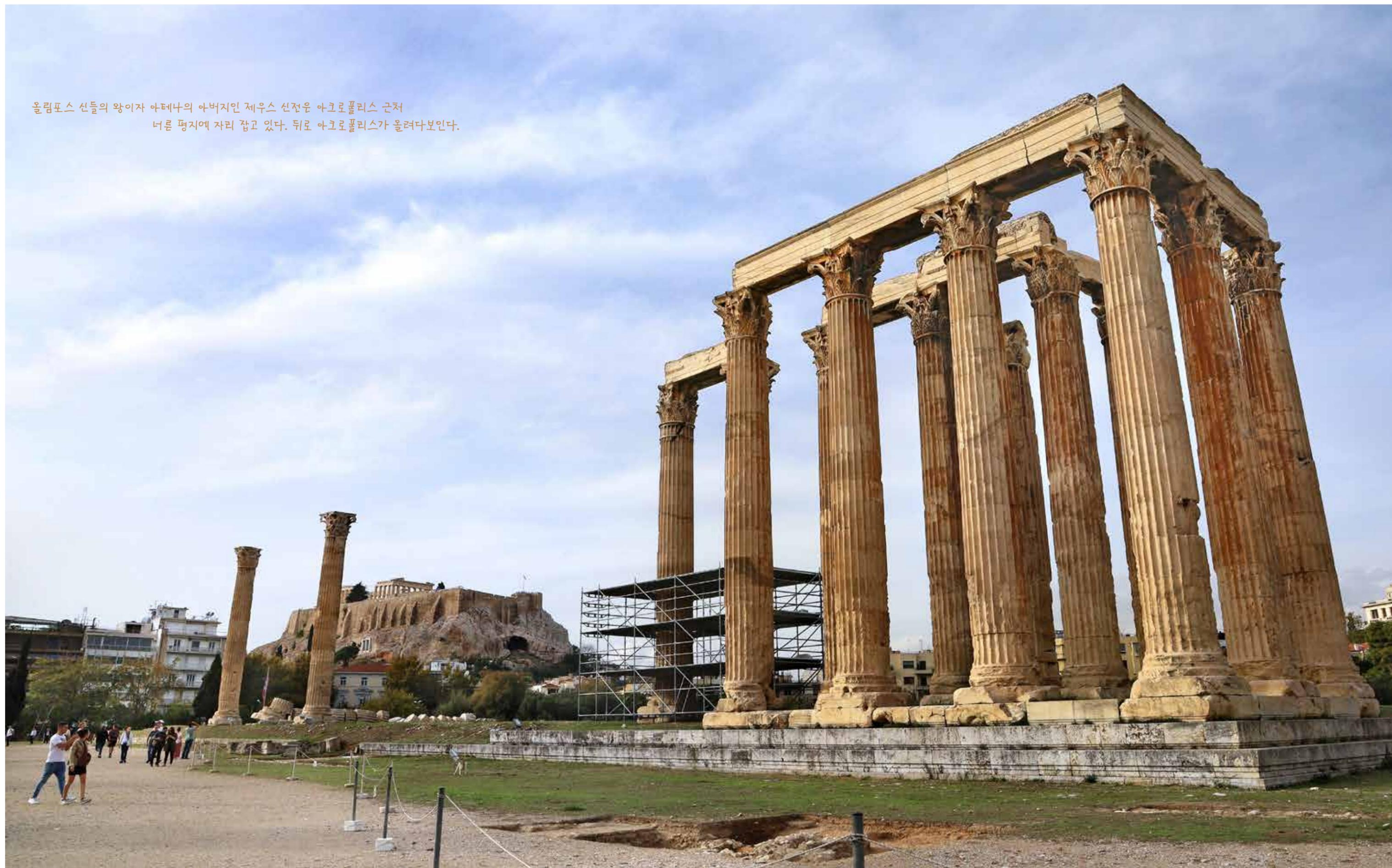
파르테논 북쪽으로 6개의 여인상 모조품이 돌기둥을 대신하고 있는 에레크테이온을 지나 다시 프로펠라이온을 빠져나오면 작은 바위 언덕이 있다.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레오파고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된 법정이다. 아레스 신이 자신의 딸을 납치하려 했던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르티오스를 살해했는데, 포세이돈이 아레스를 신들의 법정에 고발했고, 신들은 이곳에 모여 재판을 했다고 한다.

이곳을 기독교 성지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바위 아래에 성경의 사도행전 구절이 새겨진 동판 때문이다. 해당 구절은 기독교 최초의 전도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한 설교 내용을 담고 있다. 바위 언덕에 서서 방금 내려온 아크로폴리스를 다시 한번 올려다보고 반대편 아래쪽으로 눈을 돌리면 고대 아테네인들이 민주정치를 펼친 인간의 땅, 아고라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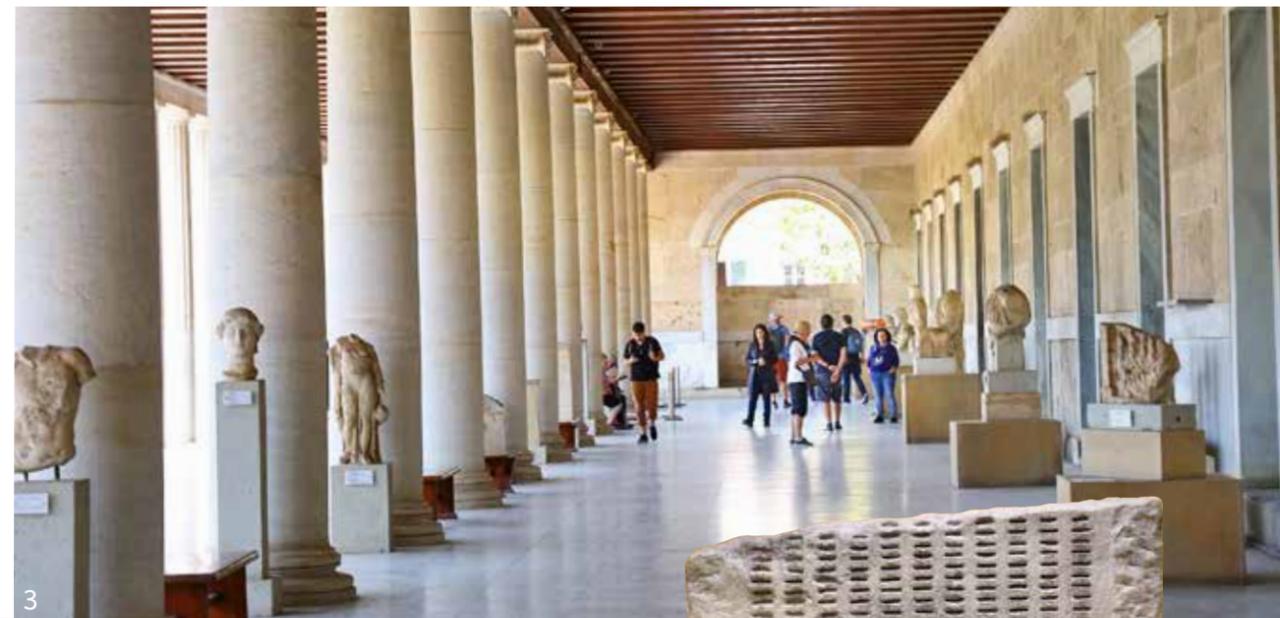
올림포스 신들의 왕이자 아테나의 아버지인 제우스 신전은 아크로폴리스 근처  
너른 평지에 자리 잡고 있다. 뒤로 아크로폴리스가 올려다보인다.





# 신의 장소에서 인간의 장소로

아크로폴리스가 신의 장소라면, 아고라(agora)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와 학문을 꽃피운 인간의 장소다. '함께 모이다'라는 뜻에서 유래해 '광장'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곳에서 아테네 시민은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하고, 재판을 했다. 물건을 사고파는 것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 1 밑돌, 기둥 일부만 남은 아고라. 뒤로 보이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온전하게 남은 거의 유일한 건물이다.
- 2 소크라테스가 사형 전 한 달 동안 갇혀있었다는 감옥
- 3 아고라 박물관 외부 회랑에 조각들이 전시돼 있다.
- 4 제비뽑기 기구인 클레로테리온 5 도편추방제에 사용된 투표용지인 도자기 조각 6 플라카 역사 지구의 상점



## 소크라테스를 따라가다

하지만 2천여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그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의회 역할을 했던 회의장인 '블레우테리온'은 입구를 알리는 표지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뒤로 보이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거의 유일하게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아고라 안에는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집회를 하던 스토아(stoa·기둥이 늘어진 회랑)가 가장 많았고, 신전과 무기고, 식당 등의 건물이 흩어져 있었다.

그 건물들의 일부였을 밑돌과 밑돌만 남은 기둥, 돌무더기들을 지나 낮은 석벽 아래 빈터에 섰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은 시민 법정이 있었던 자리다. 500명의 아테네 시민은 이곳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소크라테스 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델포이의 신탁에 의문을 품은 소크라테스는 아고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불잡고 지혜와 진실,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든 아테네인이 신을 숭배하던 시절,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생각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했다며 불경죄를 뒤집어쓰게 된 이유다.

필로파포스 기념비가 있는 언덕 아래, 그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한 달 동안 머물렀다는 감옥이 있다. 하지만 당시 아고라 안에도 감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옥의 위치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저물녘 찾은 이곳에는 앞서 다녀간 누군가 두고 갔을 빨간 장미 한 송이가 창살 안에 놓여 있었다. 그 창살 문 앞에서 서서 고개를 드니 나뭇가지 너머로 멀리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이 작게 바라다보였다.

상점가였던 아탈로스 스토아 자리에 들어선 박물관에서는 아고라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볼 수 있다. 민주정을 위협하거나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적어내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에서 투표용지 역할을 한 도자기 조각(도편)과 행정에 참가할 사람을 무작위로 뽑는 데 사용한 제비뽑기 기구인 '클레로테리온' 등 교과서에서 봤던 민주정치의 도구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부 회랑에 전시된 수려한 조각상들은 몸통 혹은 두상만 남아 전쟁과 침략의 시간을 웅변하고 있었다.

아고라를 나와 아크로폴리스 북동쪽을 둘러싼 플라카 역사 지구로 발을 들여놓으면 아테네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미로 같은 작은 골목길은 식당과 카페는 물론, 신상과 가면, 투구와 방패 등 고대 유적을 본 따 만든 각종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어설피고 부족하지만 약간의 상상을 더하면 고대 아고라의 분위기를 음미해 볼 수 있다.



### 폐허 위의 상상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록으로 남긴 제자 플라톤과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원인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 역시 원형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폐허의 흔적들로만 남아 있다.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은 원래 교육기관인 김나시온이 있던 지역의 이름이다. 김나시온은 아테네 성곽 밖 숲과 시내가 있는 곳에 들어섰고, 이곳에서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신체와 정신을 단련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이곳에 학원을 세우면서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젊은이들을 사랑했던 소크라테스는 아고라만큼이나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비교적 멀리 떨어진 데다 남아있는 게 없어 평범한 공원과 구별되지 않는 아카데미아 대신, 가까운 리케이온으로 향했다. 이국적 식물이 높이 자란 국립정원을 가로지르며 메마른 아테네 땅의 오아시스 같은 이곳을 천천히 누리고 싶었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우거진 숲을 나와 마주한 리케이온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이나, 숲을 거닐며 제자들과 토론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전형적인 그리스 신전, 대표적인 신과 철학자를 온전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은 고대 유적이 아닌, 현대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인 아테네 학술원이다. 19세기에 완공한 학술원 건물 정면에는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이 늘어서 있고, 박공벽에는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의 신들이 조각돼 있다. 양옆으로는 창과 방패를 든 아테나와 리라를 든 아폴론이 높은 기둥 위에 위용을 드러내며 서 있고, 그 아래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근엄하게 앉아 있다. 게으른 후대를 위해 고대 아테네의 정수를 한 장에 담은 깔끔한 요약본 같았다.

### 올림픽과 마라톤

국립정원 남쪽의 길 건너편에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판아테나이코스 경기장이 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아테네인들이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가장 큰 축제인 판아테나이아 제전이 열릴 때 운동 경기를 하던 장소였다. 기원후 2세기 아크로폴리스 아래 음악당을 지었던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이곳도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재건했지만 로마 제국 이후엔 거의 방치돼 있었다.

1896년 이곳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렸고, 오늘날까지도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를 개최국 대표단에 넘겨주는 장소다. 108년 만에 아테네에서 다시 열린 2004년 하계 올림픽 때는 양궁 경기가 이곳에서 열렸다. 대부분의 육상 경기는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진행됐지만, 마라톤 골인 지점은 판아테나이코스 경기장이었다. 이곳을 찾은 하루 전날에도 마라톤 대회가



1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원인 리케이온. 아테네 성곽 밖 숲과 시내에 있는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산책을 하며 토론했고 여기서 '소요학파'라는 말이 나왔다.  
2 고대 아테네를 상징하는 건축 양식과 신, 철학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테네 학술원  
3 오른쪽 아폴론 신 아래에 있는 소크라테스 상. 소크라테스는 등창코에 머리가 벗어지고 배가 나온 추남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상은 꽤 잘생기게 묘사했다.

열렸었다. 관계자들이 마라톤 대회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동안 어떤 관광객은 아직 남아있는 시상대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마라톤 경기가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원에서 벌인 전쟁에서 유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42.195km를 달려 아테네의 승전을 알리고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에 가깝다. 마라톤 전투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기록에 따르면 페이디피데스는 승전보가 아닌 스파르타에 원군 요청을 위해 보낸 병사의 이름이고, 그가 달린 거리는 200km가 넘는다.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거리는 36km 남짓이었고 1896년 처음 열린 마라톤 경기의 거리는 40km였다. 이후 주최국 사정에 따라 조금씩 거리가 달라지다가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당시 왕족들이 출발과 골인 장면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점을 조정하면서 195m가 늘어난 것이 19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기준이 됐다.

참고도서 '아테네: 영원한 신들의 도시'(장영란)  
'아테네의 변명'(베티니 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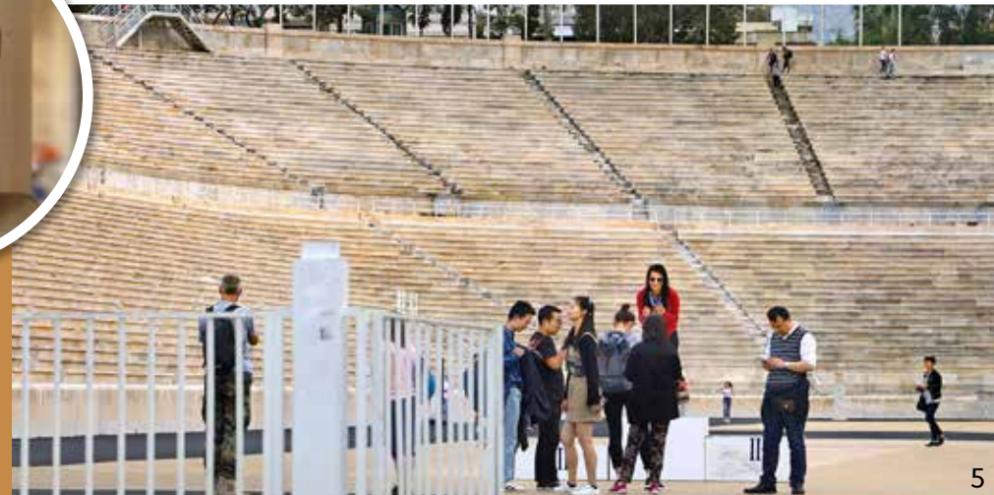


1



4

4 아고라 박물관에 있는 역사가 헤로도토스 두상  
5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판아테나이코스 경기장



5



포로스 섬과 필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의 해협 풍경



## 섬들의 나라 맛보기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섬들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스에는 암초까지 포함하면 6천여개의 섬이 있다. 이 중 227개 섬에 사람이 산다. 섬에서도 신화와 역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태어났다는 크레타섬은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고향이기도 하다. 태양의 신 아폴론과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태어난 델로스섬은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한 곳이다. 바로 옆의 미코노스와 산토리니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이미지를 눈이 시리도록 하얗고 푸른색으로 각인시킨 대표적인 관광지다.

### 당일치기 섬 여행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리스를 찾았는데 좋다고 놀러왔을 수는 없고, 시간도 부족한 무지한 여행자에게 단비 같은 정보가 있었다. 저 유명한 섬들은 아니지만 아테네에서 가까운 섬 세 곳을 하루에 둘러보는 '원 데이 크루즈'였다. 목적지는 사로니코스 만에 있는 애기나, 포로스, 이드라섬.

이른 아침, 숙소로 픽업 온 차를 타고 온갖 배가 오가는 피레우스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했다. 찌뿌드드한 하늘이 불안하더니 바람이 제법 거세게 불었다. 다소 무겁고 우중충한 분위기는 애교 넘치고 귀여운



아저씨 두 명으로 단출하게 구성된 선내 악단이 살려냈다. 남미에서 온 단체 관광객을 확인하더니 아마도 매우 유명한 것이 분명한 신나는 스페인어 곡을 연주했다. 흥 넘치는 이 단체 관광객은 벌떡 일어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쳤고 다른 탑승객들까지 합세해 신나는 춤판이 벌어졌다. 종일 빗방울이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지만 작고 아름다운 섬의 소박한 정취에 빠져들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울 따름이었다.

### 나귀를 타는 섬

처음 도착한 곳은 아테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드라 섬이었다. 잔뜩 흐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항구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자마자 천둥이 우르르, 번개가 번쩍 요란하게 환영을 해줬다. 요트와 어선이 빼곡한 선착장을 둘러싼 메인도로에는 시계탑을 중심으로 상가와 식당, 카페들이 이어지고 뒤쪽 언덕으로 빨간 지붕을 인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풍경이 정다웠다. 2천명 남짓의 섬 주민 대부분이 이곳에 모여 산다. 부슬비가 끊어졌다 가늘어졌다 했지만,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기념품점으로, 카페로, 박물관으로 흩어졌다. 이 작은 섬에는 자동차가 없다. 주민들의 교통수단은 당나귀다. 이곳을 찾는 여행객에는 좋은 관광 상품이기도 하다. 한 가족이 비를 맞으면서도 웃음을 터뜨리며 나귀 등에 올라탔다. 작은 골목골목을 엿보며 한적한 길을 산책하는데 빈 나귀를 끌고 가는 주민이 이곳저곳에 고양이 사료를 덜어놓고 있었다. 길에서 만난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어여뻐다.



- 1 인구 2천명 남짓의 작은 섬 이드라
- 2 아기자기한 골목길 풍경
- 3 자동차가 없는 섬에서 나귀는 주민의 교통수단이자 관광 상품이다.



1 유람선 위에서 본 포로스 섬 2 낚시하는 섬 주민



**잠시 맛본 지중해의 햇살**

포로스 섬에 가까워지자 해가 반짝 고개를 내밀었다.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어느 신이 '왔다, 맛이나 보라' 하며 잠깐 선사 해 준 것 같은 지중해의 햇살이 눈부셨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의 해협과 해안에 정박해 있는 요트는 더욱더 하얗게, 빨간 지붕과 다양한 색으로 장식한 창문은 더욱 알록달록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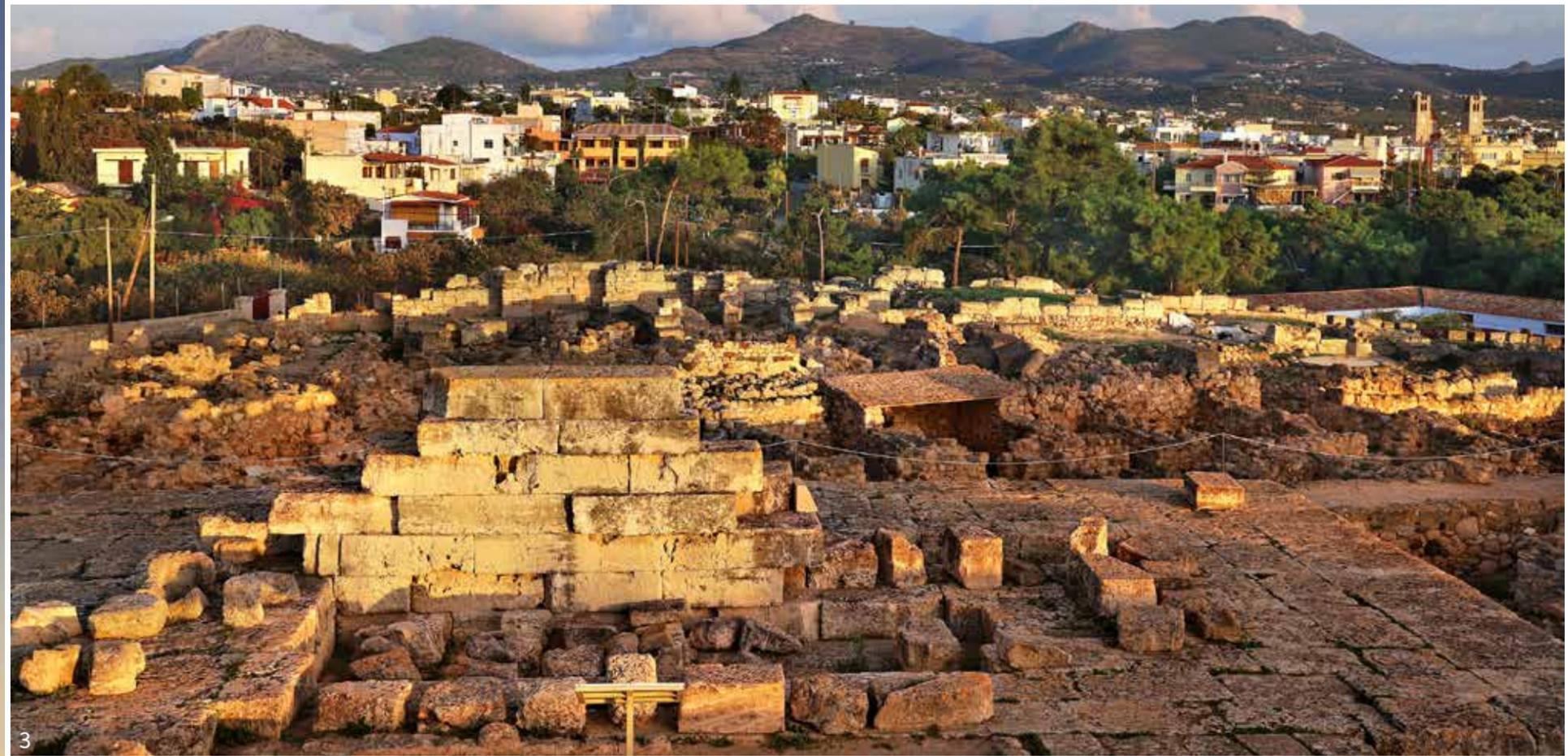
항구에 닿자 바위 언덕 위에 솟아있는 하얀 시계탑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새 겹옷을 벗어두고 팔과 어깨를 드러낸 사람들과 함께 남쪽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파란 하늘과 투명한 바다 위에 반짝이는 윤슬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 사로니코스만의 석양

사로니코스만에서 가장 큰 섬인 애기나는 만의 한 가운데 있다. 역삼각형 모양의 섬 북서쪽에 있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의 황금빛 햇살이 비껴들기 시작할 때였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부두에서 있는 하얀 외벽의 아주 작은 정교회가 외지인들을 맞았다. 항구를 따라 늘어선 큰길에는 카페에 앉아 늦은 오후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과 마차를 타고 신이 난 사람들이 뒤엎혔다.

북쪽으로 뾰족 솟아오른 유적지의 흔적을 향해 걸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오는 사람과 해변에 앉아 노을을 기다리는 사람을 지나니 아폴론 신전을 포함한 고고학 유적지와 박물관이 나왔다. 기원전 5세기 애기나의 아크로폴리스였던 이곳은 19세기 이후 시작된 발굴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단 한 개의 기둥만이 남은 가장 높은 곳에 서니 남쪽으로 석양을 받고 있는 애기나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북쪽의 텅 빈 코로나 해변은 하염없이 빛났을 한여름을 떠올리게 했다. 석양을 따라 점점 붉고 진해지는 돌을 천천히 밟으며 내려왔다. 언덕배기를 채운 빨간 지붕 위 하늘이 분홍빛으로, 보랏빛으로 변해갈 때 새하얀 달이 떠올랐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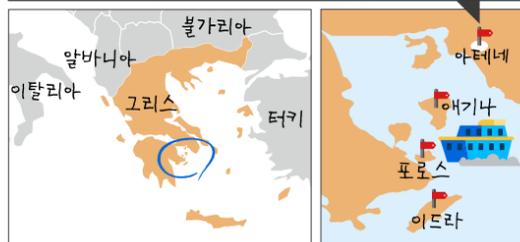
1 애기나섬 아크로폴리스 유적지에 단 하나 남은 기둥에서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다. 2 애기나섬 항구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3 유적지와 애기나 시내에 석양이 비치고 있다. 4 애기나 항구의 저녁



**기본정보**

**교통**  
직항은 없다. 유럽이나 중동 지역을 경유할 수도 있지만, 이스탄불을 거쳐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노선이다. X95번(6유로) 공항버스를 타면 시내까지 편하게 갈 수 있다.

**날씨**  
산지가 많은 북쪽은 고산 기후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테네 주변은 지중해성 기후다. 여름에는 무척 덥고 건조한 반면,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편이다.



**가볼 만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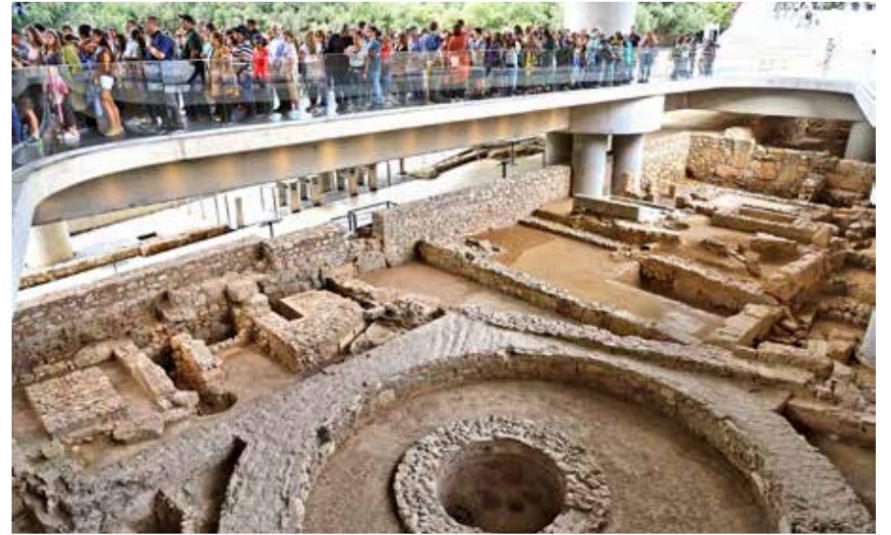


**도심의 오아시스 국립정원**  
아크로폴리스 동쪽에는 이국적 식물이 높이 자란 국립정원이 있다. 1836년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한 신생 그리스의 초대 왕비를 위해 꾸며진 이 수목원은 메마른 아테네 땅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낮은 곳에 머무는 최고의 신**  
올림포스의 첫 번째 신이자, 아테나와 아폴론 등의 아버지인 제우스의 신전은 아크로폴리스가 올려다보이는 낮은 평지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드넓은 땅에 20개가 채 되지 않는 기둥만이, 하나는 태풍에 쓰러진 채 남아있지만 애초 그 규모는 파르테논의 두 배 이상으로, 가장 컸다. 기원전 515년 시작된 공사는 금세 중단됐고, 우여곡절 끝에 기원후 132년에야 로마 황제에 의해 완공될 정도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아크로폴리스 유물을 보관·전시하는 박물관은 원래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었다. 2009년 아크로폴리스 기슭 아래에 새로 지은 새 박물관에는 영국이 약탈해 간 파르테논 대리석 조각을 전시할 공간을 마련했다. 이는 그리스 문화재를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영국은 당시 오스만 제국과 적법한 계약을 맺고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물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리스에는 이 유물을 보관할 적당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다.



**야경 명소 리카베투스 언덕**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이름은 아크로폴리스가 가지고 있지만, 아크로폴리스 동북쪽에 더 높은 리카베투스 언덕이 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아테네 시내와 아크로폴리스 야경이 볼 만하다. 화가 난 아테나가 집어 던진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음식**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꼽히는 '지중해식'의 전형이다. 아테나가 준 선물인 올리브가 대표적이다. 기로스, 수블라키 등 이름만 다를 뿐 터키의 케밥과 비슷한 구운 고기 요리와 신선한 해산물 요리, 염소젖으로 만든 페타 치즈와 올리브 오일이 듬뿍 들어간 그리 샐러드를 비롯한 채소 요리, 요거트에 마늘과 레몬즙을 섞은 차치키 소스 등을 즐길 수 있다. 신화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리스 와인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자국에서 소비하느라 접하기 쉽지 않으니 마음껏 마셔두어야 한다.

